

	<h2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2>	작성과	예 방 안 전 과
 행정안전부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5월 31일(금) 조간 (5.30. 12:00 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담당자	과 장 지만석 주무관 박문순
		연락처	044-205-4510 044-205-4517

6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 호우(장마), 폭염, 물놀이·해양사고, 감전 및 추락사고, 자전거사고, 감염병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호우	물놀이 수난 및 해양사고	감전 및 추락사고
		
폭염	자전거사고	감염병

-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 / 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 월평균보다 6월에 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가 높은 유형

** '13~'18년 6월 발생 재난안전 관련 트윗(1억 4,738만 건) 이슈 분석(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정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 (호우·장마) 6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132.9 ~ 185.9mm)과 비슷하거나 적겠지만, 중·하순경에 장마와 함께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 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전점검 및 대비가 필요하다.

◆ 최근('07~'18, 12년) 발생한 호우 특보 5,403건 중
누적 월평균 450건, 6월 평균 483건



- 장마는 대체로 6월 중순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전국에 32일 정도 영향을 준 뒤 7월 하순 경 종료된다.

< 2018년 및 평년(1981~2010년)의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 및 기간 >

구 분	2018년			평년(1981~2010)		
	시작	종료	기간(일)	시작	종료	기간(일)
중부지방	6. 26	7. 11	16	6.24 ~ 25	7.24 ~ 25	32
남부지방	6. 26	7. 9	14	6.23	7.23 ~ 24	32
제주도	6. 19	7. 9	21	6.19 ~ 20	7.20 ~ 21	32

※(참고) '18년은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장마 기간이 짧았음(장마일수 14~21일), 평년(32일, 1988~2017년 평균)

- 기상청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최근의 호우 특성을 반영하여 호우특보 기준을 강화*('18.6.1.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에는 호우 특보가 2배('07~'18년 1년 평균 37.5건→'18년 85건) 이상 증가하였다.

* 현행보다 짧은 시간 간격의 호우특보 기준 도입으로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 기대

< 기상청 호우특보 변경 >

구 분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기 존	변경	기 존	변경
6시간 → 3시간	70mm	60mm	110mm	90mm
12시간	110mm	110mm	180mm	180mm

- 최근 11년('07~'17년)간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호우는 88건(인명피해 188명, 재산피해 2조7천억)으로 그중 6월에 발생한 호우는 총 8건(인명피해 0명, 재산피해 115억)이다.

< 최근 11년('07~'17년)간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월별 호우현황 - 재해연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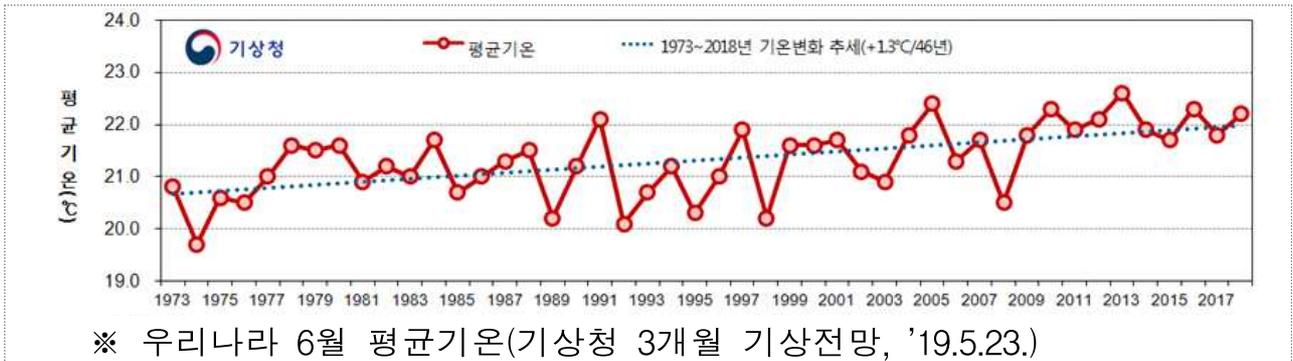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피해발생 회수	88			-	3	2	8	39	23	8	2	3	-
인명피해(명)	187	-	-	-	-	2	-	175	7	3	-	-	-
재산피해(억)	26,589	-	-	25	65	187	115	20,634	4,913	647	1	2	-

※ (참고)'11.6.21~7.3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재산피해 113.8억 발생

- 국민들은 장마가 오기 전에 주택의 하수구와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대형 공사장이나 비탈면, 산사태 발생 가능 지역 등에 대한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 (폭염) 6월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월의 기온 증가가 뚜렷하다.



-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기록적인 더위**가 장기간 지속되었던 '18년에는 온열질환자 수가 전년대비 188% 증가('17년: 1,547명, '18년: 4,525명)했다.

*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열탈진, 열사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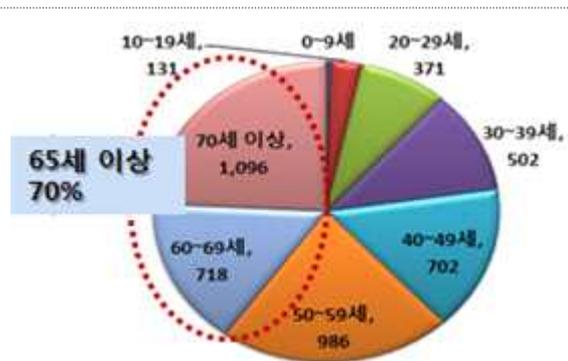
** 폭염 일수 31.5일(평년 9.8일), 열대야 일수 17.7일(평년 5.1일)

- 온열질환자는 열탈진 55.3%(2,502명), 열사병 23.2%(1,050명) 순으로 발생했고, 연령별 환자 수는 50대 21.8%(986명)에서 가장 많았다.
- 사망자는 총 48명(모두 열사병으로 추정)으로 전년대비 336%(37명) 증가했고, 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에서 집중발생(71%,34명)했다.

년도별 온열질환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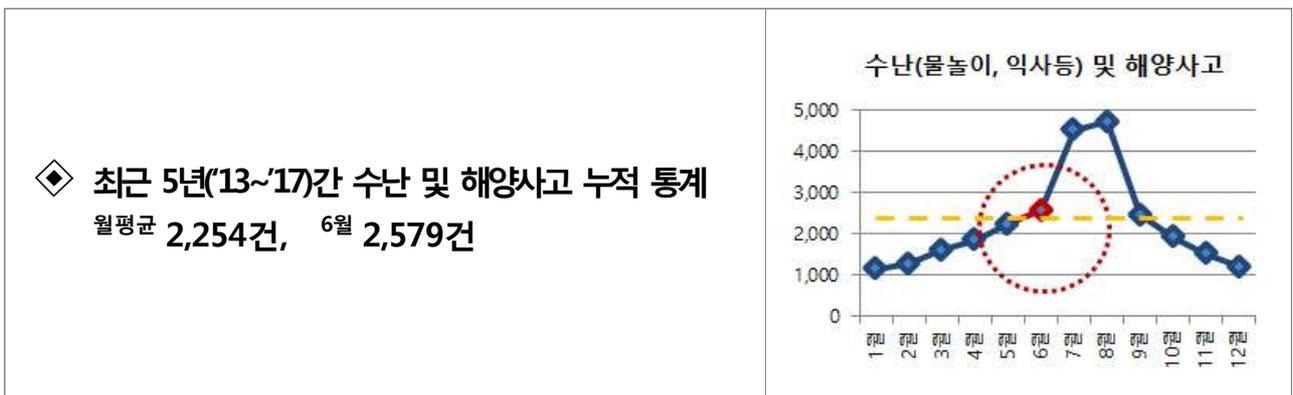


2018년 연령대별 온열질환자수



- 질병관리본부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5월 20일부터 9월 까지 가동해 국민의 폭염 건강보호 활동을 안내하고, 온열질환 발생현황과 주요 특성을 점검한다.
- 국민들은 폭염을 대비해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 아울러, 오후 2시 ~ 5시에는 야외활동과 작업을 삼가해야하고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 (수난·해양사고) 6월부터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수난 및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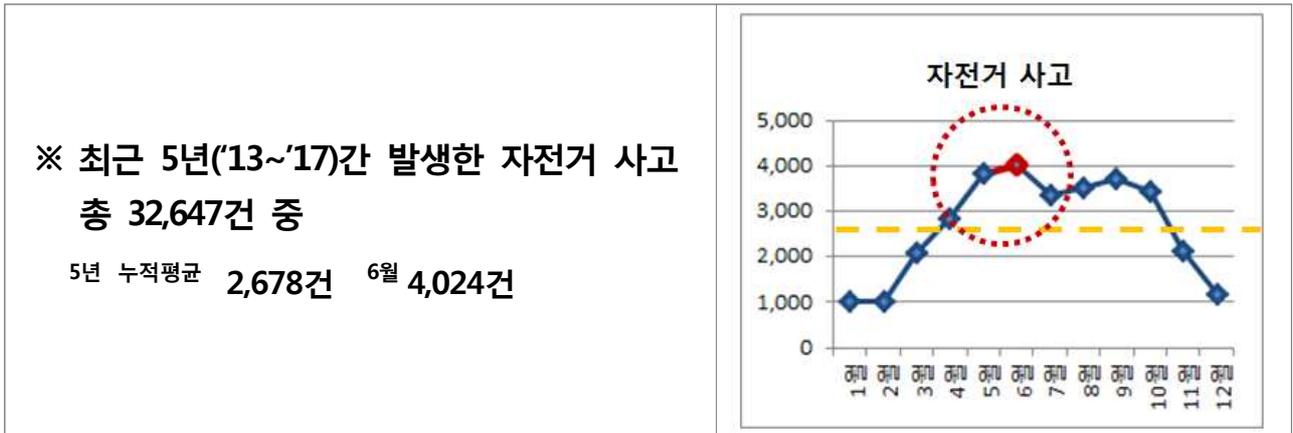
- '17년 수난 및 해양사고 7,234건 중 633건은 6월에 발생(월평균 602건)했다.
 - 수난사고 주요원인은 물놀이사고 1,381건(34.2%), 익사사고 397건(9.8%), 선박·동력·수상레저 등 366건(9.1%)이고 기타 자살사고 296건(7.3%), 추락사고 159건(3.9%) 순이다.
- 물놀이 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는 탑승 전 사전교육(주의사항 등)을 받고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 익수 사고 발생 시 함부로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즉시 소리쳐 주위에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 (전기감전·추락사고) 6월은 고온 다습한 날씨 등으로 감전사고와 추락사고 발생 건수가 높다.



- '17년 감전 및 추락사고 6,597건 중 658건은 6월에 발생(월평균 550건)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연보('17년)에 따르면 전기(감전) 사고는 주로 공장·작업장에서 발생(190건, 35.7%)했고, 사고 유형은 주로 전기 충전부 직접 접촉 시 발생(307건, 58%)했다.
- 추락사고는 주로 주거용 건물 1,734건(28.6%), 공사장·공장 1,607건(26.4%)에서 많이 발생했고, 사고 유형은 실족·추락 3,726건(61.4%)과 안전수칙 불이행 1,578건(26.0%) 순으로 나타났다.
-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가 오거나 습한 날씨에는 가로등, 신호등, 에어컨 실외기, 입간판 등과의 접촉을 피해야한다.
 - 사업장에서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전기기기를 정비 할 때는 전원을 차단해야한다.
- 아울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에서는 추락사고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를 해야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자전거) 6월은 연중 자전거 사고 발생이 가장 높은 시기로, 이용중 반드시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필요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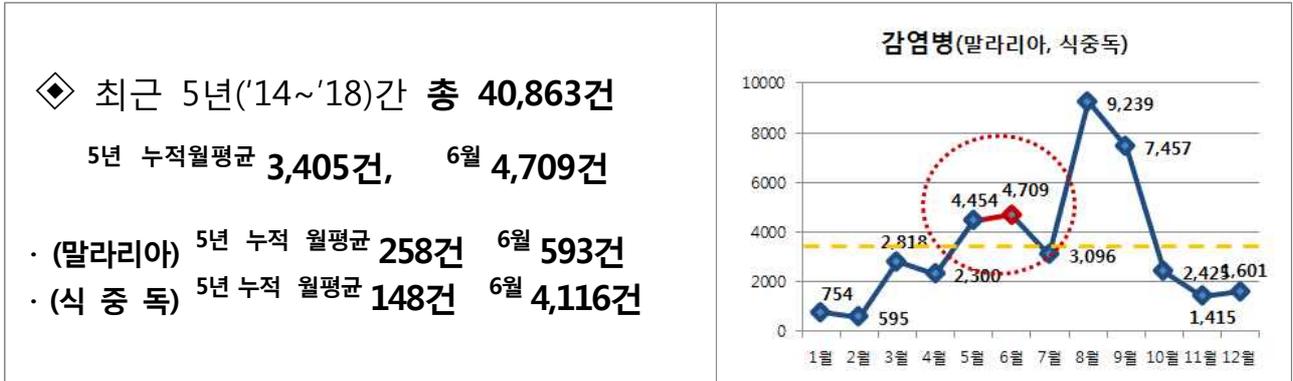


- '17년 자전거 사고 5,330건 중 654건은 6월에 발생(월평균 444건)했다.
-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 환자 수 ('12~'17년)는 4만 6635명이다. 손상 부위는 주로 외상성 머리손상 (46.6%)이며, 다음으로 상지(21.9%), 하지(15.7%)순이다.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2-2017) : 매년 23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 환자 관련 심층자료를 수집하여 손상 통계 산출

- 한편, 사고 발생 시 안전모 착용은 4.6%에 그쳐 대다수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안전모 착용 생활화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과 협력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참고)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처벌, 안전모 착용 의무화('18.9.28 시행)
- 자전거로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도로를 건널 때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 횡단도가 없는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 하되, 천천히 끌고 가는 것을 권장한다.

□ (감염병) 6월은 고온 다습한 날씨로 모기를 매개로 한 말라리아 및 오염된 음식물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높은 시기이다.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감시연보에 따르면 최근('14~'18) 말라리아 발생 수는 감소 추세이나 '18.6월은 전년 동월 대비 109%('17.6월 86건 → '18.6월 129건)로 증가하여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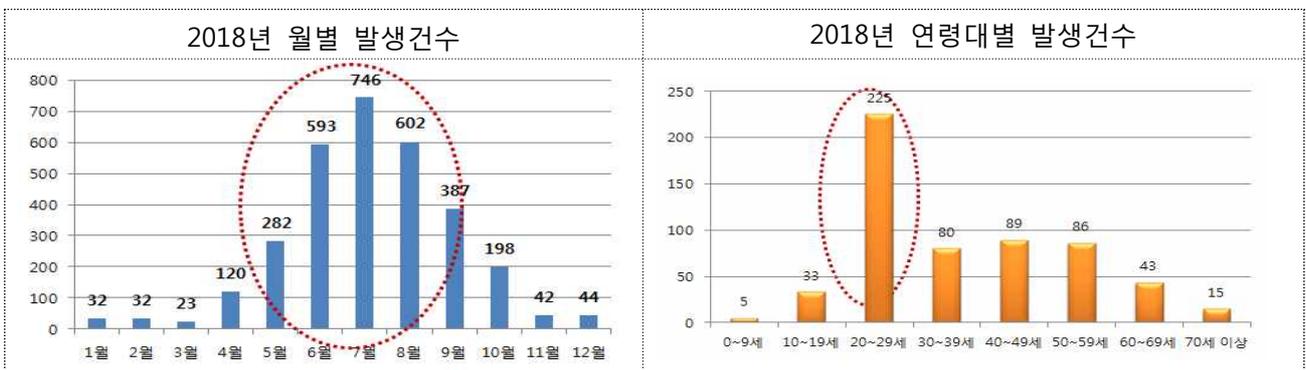
- 연령대로 보면 20-29세(225건, 39.1%) 사이에서 가장 높고 지역별로는 경기도(325건, 56.4%)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월별로는 6월에 크게 증가(5월: 282건, 6월: 593건, 110.2% 증가) 하였다.

<2018년 연령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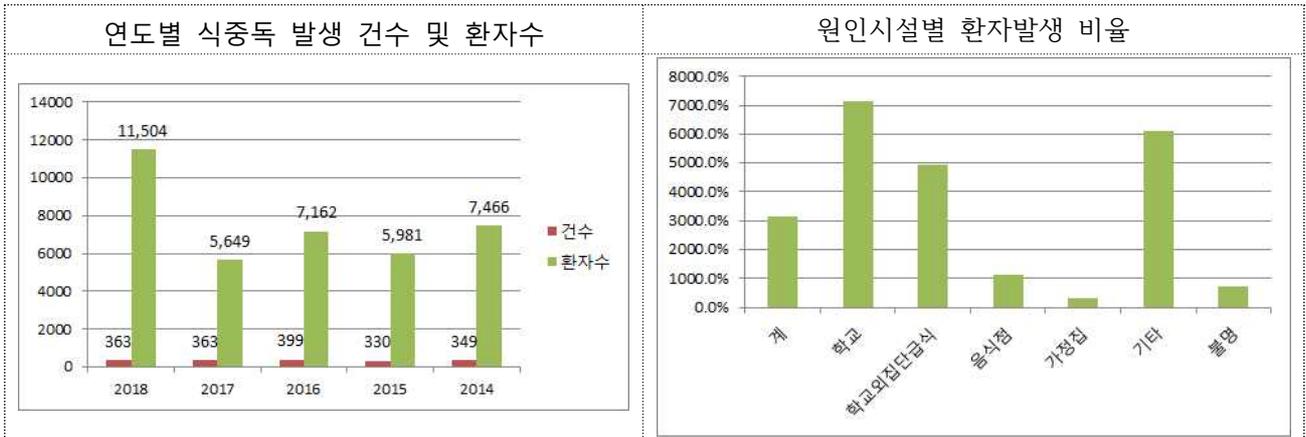
전국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576	5	33	225	80	89	86	43	15
100%	1%	6%	39%	14%	15%	15%	7%	3%

<2018년 지역별 통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576	82	9	13	82	5	3	4	325	11	3	8	5	6	3	13	3	1
100%	14%	2%	2%	14%	1%	1%	1%	56%	2%	1%	1%	1%	1%	1%	2%	1%	0%



- '18년 식중독 사고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17년: 28건, '18년: 30건)한 반면에, 환자 수는 11,504건('17년: 5,649건)으로 큰 폭(109%)으로 증가 하였다.
 - 원인 시설별 발생 건수는 음식점이 55.6%(202건)로 높으나, 환자발생 비율*은 학교가 7127.3%(44건, 3,136명 환자 발생)으로 가장 높다.
 - * 발생 환자 수/발생 건수*100



□ 질병관리본부는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이하 설사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방역 근무 체계와 24시간 업무체계**를 지속 유지(5.1 ~ 9.30)하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실시한다.

* 제1군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지정감염병인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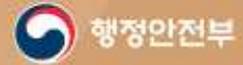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평일 비상 근무 : 09~2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 09~16시까지 유지 (질병관리본부)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 역학조사 :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유행이 인지되었을 때 유행의 원인 및 경로를 파악하는 조사

□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6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 사고에 대비,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 “국민 여러분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라고 말했다.

국민행동요령



태풍 · 호우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국민행동요령
폭염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술이나 카페인에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십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오후 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냉방기기 사용시, 실내의 온도를 5°C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효율 예방합니다.
※ 적정 실내 냉방온도: 26~28°C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춥니다.

국민행동요령

물놀이 안전



• 물놀이 전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 착용 후 들어갑니다.



어린이 물놀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해수욕장, 하천 등에서는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끝주 후 수영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물놀이 합니다.

•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



익수사고 발생 시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 구조하려고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아야 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물놀이 현장에 비치된 안전장비 (구명환, 구명조끼, 구명 로프 등)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였을 때에는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국민행동요령

수상 레저기구 안전



해양경찰청



탑승 전 전문가의 사전교육(주의사항 등)을 받고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구명조끼와 안전모 등 안전장비는 반드시 착용합니다.



노약자나 임산부, 주취자는 수상 레저기구에 탑승하면 안 됩니다.



액세서리는 탑승 전에 미리 제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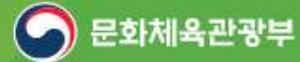
바람이 강한 날에는 운행, 탑승하지 않습니다.



물장난이나 다이빙 등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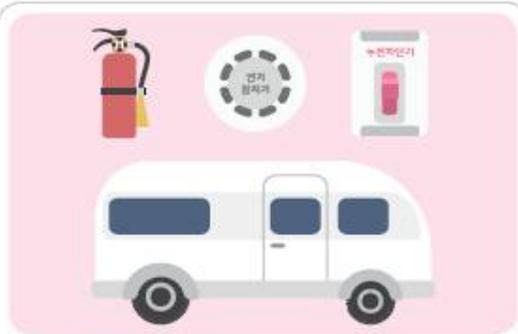
야영장 안전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에서 야영장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한 야영장소**를 선택합니다.



천막 등 밀폐된공간에서 문어발식 전기 사용 시 화재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가스 취급 시 화재나 폭발, 일산화탄소 중독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 또는 자제해야 합니다.



글램핑과 카리반과 같은 야영시설은 내부에서 전기와 화기를 사용하므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야생 진드기, 설치류 등에 의한 감염 예방 또는 뱀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 캠핑장 주변 잔디나 풀 위에 눕거나 있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요원에게 신속히 알린 후 응급조치를 실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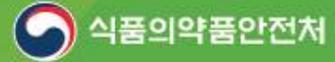


야영장 표준 이용수칙

1.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 및 화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2. ...
3. ...
4. ...
5. ...
6. ...

야영장 표준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용객 스스로 안전한 야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노로바이러스의 특징



- ▶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
- ▶ 환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



낮은 온도에서도 오래 생존



소량으로도 발병가능



추운 날씨로 개인 위생관리 소홀



실내 활동이 많아 사람 간 감염이 쉬움

주요 증상



단위 : 시간

잠복기



설사



탈수



복통



구토



근육통



두통



발열

주요 감염 경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이렇게 예방하세요!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손 씻기



조리 도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



채소, 과일은 깨끗이 세척한 후 섭취



충분히 익혀 먹기 (굴 등 어패류 생식 삼가)



물은 끓여 마시기



주변환경은 청결히 하기 (염소소독액 1,000ppm)

무더울 땐 이렇게 건강 챙기세요!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많이 마시십시오.

- 술이나 카페인 있는 음료는 마시면 안됩니다.
※ 신장질환을 동반한 어르신은 의사와 상담 후 물을 드십시오.



야외활동이나 야외작업은 하지 마십시오.

- 한낮(낮 12~5시 사이)에는 외출이나 논일, 밭일, 비닐하우스 작업은 하지 마십시오.
※ 부득이 외출을 하실 때는 헝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 또는 양산을 쓰시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하십시오.



시원한 장소에서 쉬십시오.

- 선풍기는 창과 문을 연 상태에서 사용하십시오.
- 커튼 등으로 햇볕을 가려주십시오.
- 우리 동네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과 같은 <무더위 쉼터>를 찾으십시오.
→ 가까운 무더위 쉼터는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서 알려드립니다.





휴가 전

- 백열등, 형광등은 장시간 켜놓으면 과열되어 전기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소등하세요.
- 발코니와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세요.

정전

- 정전 시에는 모든 전기제품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 휴대용 랜턴과 배터리,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를 준비하세요.



집중호우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노후되거나 손상된 전선은 교체하세요.
- 양수모터와 같은 배수장비를 갖추어 두고, 미리 성능시험을 해주세요.

폭우·침수

- 가옥의 일부가 침수 시 즉시 분전함 차단기를 내려주세요.
- 물에 잠겼던 가전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면 감전 위험.
- 침수 지역에 들어갈 때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습기·강풍

- 습기나 물기가 많은 곳의 기계기구에는 반드시 접지하세요.
- 강풍을 대비하여 전기설비와 달을 우려가 있는 파이프, 간판, 임시시설물은 미리 제거하거나 단단히 고정하세요.

길거리 위험요소

- 가로등, 신호등, 맨홀뚜껑 등 거리 전기시설물 근처 접근금지!





자전거 안전하게 이용합시다!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20만원 이하
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술에 취한 정도에 따른
처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9.28.부터 시행



안전모 착용하기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행할 때에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

※ 안전모 착용의무규정
9.28.부터 시행



안전한 전기자전거 운행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
하는 경우 4만원 과태료 부과

※ 통행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확인 : www.bike.go.kr